



기독교의 기본진리 - 존 스토트

신앙서적을 통해 기독교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새롭게 정립시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신앙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느낀 점 중 먼저 조금 낮설었던 부분을 먼저 써 봅니다.

기독교 신앙에 필수적인 요소를 이번에는 책을 통해 단단히 세워가리라 생각하며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성우가 녹음한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글을 읽으며 글자를 쫓아 가기에 바빠 한 줄, 한 문장의 뜻을 파악치 못하고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반복해 읽고 복습하며 차츰 함께 듣고 눈으로 읽는 것에 적응하며 또한 중간 중간 목사님이 중요 요점을 말씀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속에 마음이 열리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즉 느낀점 중 좋았던 부분) 저의 믿음의 출발점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상실된 관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한 마음들, 자신을 못 보고 행동하는 이기심의 결과로 죽음도 인식 못하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필요하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정복과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빛진자의 삶을 살았는데 믿음의 출발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로 초점이 바뀌니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 불순종 함으로 우리의 상태가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며 세상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니 세상을 보는 시선이 회색에서 긍정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함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써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